

시코츠토우야 (支笏洞爺) 국립공원의 모습

화산활동의 박물관

네세코안누프리
(ニセコアンヌプリ)

요우테이산 (羊蹄山) 독립봉우리로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의 형태나 화구가 침식에 의한 변형이 적은 것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화산이기 때문이다. 요우테이산 (羊蹄山)의 분출물은 동쪽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고, 예전에는 활발한 활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역사시대가 시작된 이후 분화에 대한 기록은 없다.

요우테이산
(羊蹄山)

시코츠호와 주변 세 개의 산 시코츠호는 면적 77.3km²로 일본에서 8 번째로 큰 호수이다. 시코츠칼데라는 약 4 만년 전에 일어난 거대한 분화에 의해 생겨났다. 분화 시에 대량의 속돌과 화산재가 내려와 그 화산쇄설류는 삿포로시 (札幌市)와 요우테이산 (羊蹄山) 부근까지 이르고 있다. 호반에서 바라보이는 경치가 인상적인 세 개의 산 훗푸시산 (風不死岳)·에니와산 (恵庭岳)·타루마에산 (樽前山)은 칼데라가 생겨난 후에 활동을 시작했다. 타루마에산은 9000 년 전에 생성된 산으로, 눈에 띄는 용암원정구는 1909 년의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1978 년에 작은 분화가 일어난 적이 있다.

에니와산
(恵庭岳)

시코츠호
(支笏湖)

훗푸시산
(風不死岳)

타루마에산
(樽前山)

나카지마섬
(中島)

토우야호
(洞爺湖)

우스산
(有珠山)

쇼우와신잔산
(昭和新山)

화산이 만들어낸 자연

홋카이도 (北海道)의 화산을 지금은 활동을 멈춘 것까지 포함하여 지도에 그려보면, 많은 지역의 화산이 대상 (帶狀)으로 연결된다. 치시마 (千島) 열도에서 동북일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화산대는 태평양 지각판이 해구에 깊숙이 침하하여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를 상승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홋카이도는 치시마코 (千島弧)과 토우호쿠니혼코 (東北日本弧)라는 2 개의 궁형 열도의 접점을 이루는데 화산대가 크게 구부러져 있는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시코츠

토우야 (支笏洞爺) 국립공원이다. 이 국립공원에서는 우스산 (有珠山)과 타루마에산 (樽前山)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지의 용모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 과거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시코츠호, 토우야호, 굿타라호 (倶多楽湖)라고 하는 세 개의 칼데라 호수와 풍부한 온천은 각각 특징이 있는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이 국립공원의 풍경을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도록 만들었다.

지각판과 화산



굿타라호 (倶多楽湖)와 노보리베츠 (登別) 또 하나의 칼데라 호 굿타라호는 수 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 시코츠 (支笏)·토우야 (洞爺) 두 호수보다 작으며, 직경 2 km 정도이다. 노보리베츠의 지고쿠다니 (地獄谷)와 오오유누마 (大湯沼) 등은 약 1 만 년 전 히요리야마 (日和山)의 분화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